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호흡기성 괴질에 대하여

작년까지 잠잠하던 양계장의 질병문제가 최근 일산, 포천, 홍성, 강화 등의 지역에서 괴질이 발견되어 오랜기간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양축가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는 작년부터 질병예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축가들의 협조없이 는 질병의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취 재 부〉

얼마전 TV에 최근 호흡기성 괴질이 닭에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본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강화, 홍성 등지의 문제의 농장을 찾아 보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 대부분의 농장들이 기록을 하지않고 있어 산란율, 사료섭취량, 폐사수 등의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양계장들이 과학적으로 자기 농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 (채란농장 탐방기사 참조)

다행한 것은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이미 이들 농장에서 병체를 가검물로 수거해간 후였고 연구소로부터 구두로 병성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곳도 있었다.

### 강화의 경우

유색, 백색 산란계와 브로일러 종계들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들로써 약 30,000여수 규모의 농장들이다.

그중 1개 농장의 예를들면 여러계군중

2,046수의 한계군에 발병했는데 산란율은 1월24일 71.8%에서 1월29일에는 16.1%로 떨어졌고 30.7%가 폐사도태 되었다. 정상적으로 산란이 회복되는데 15일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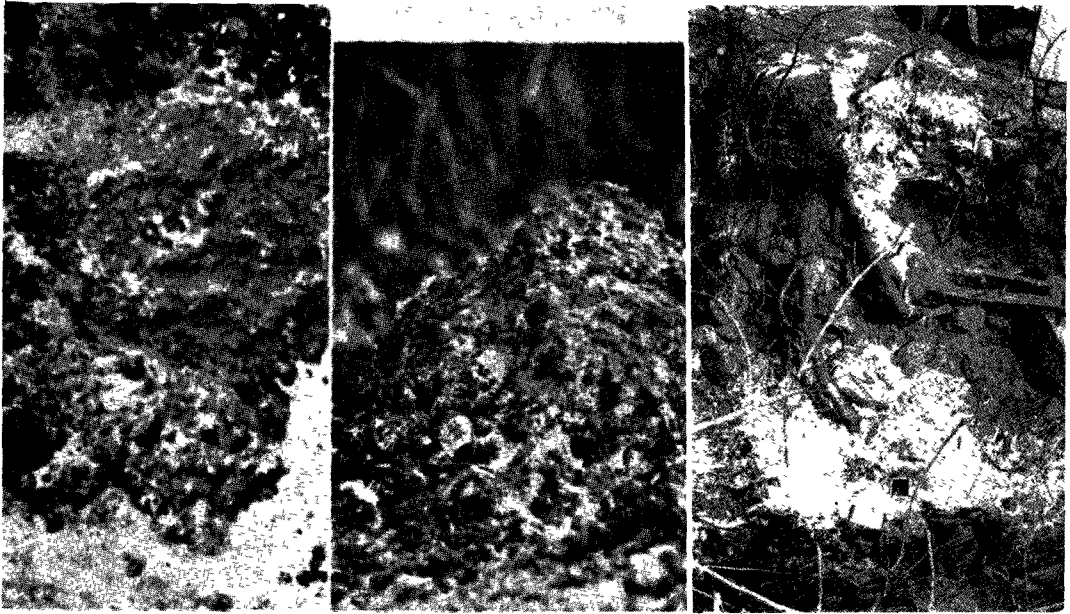
각계군에 따라 폐사율도 55%에서 18% 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계에서 폐사가 많이 나왔고 초산 1개월령의 계군에서는 5일만에 회복되기 시작하여 93%까지 산란율이 회복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된 증상으로는 심한 호흡기 증상과 케이지의 철망에 병체가 토해낸 혈담이 묻어 있는등 전형적인 전염성 후두기관염 증세들을 보였다.

불은면 삼성리의 K농장의 경우 3천수 규모에 이번 질병으로 산란율과 폐사에 의한 피해 외에도 며칠동안 약값으로 6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 홍성의 경우

홍성의 J농장의 경우는 연구소 직원이 농



△ 병계의 뒷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진은 병계로부터 배설된 계분(左)과 발병계를 임의로 처리한 모습(右))

장에 도착 하였을 때는 국내 통신사, 방송국 기자들도 와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농장이다.

81년 1월에도 금년과 같은 증상으로 각종 주사와 투약으로 치료해보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모두 처분한 경험이 있어 금년에는 발병하자 곧 처분해 버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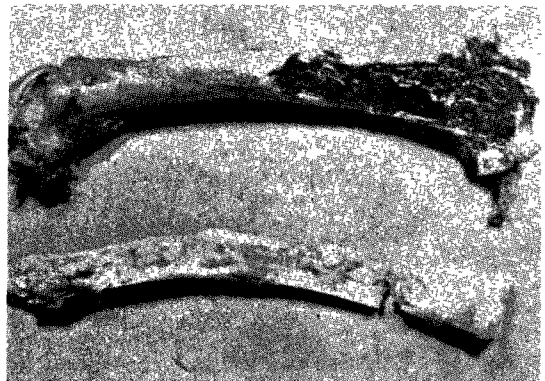
2월 28일과 3월 1일의 연휴 후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번의 경우에도 약 3m밖에 안 떨어진 계사의 닭에게는 전과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농장에서도 본회에서 발견된바 있는 흰색질병잔서를 퍼놓고 증상이 전염성 후두기관염과 같았다고 설명한다.

이농장도 작년에는 6번까지 주사를 하였었다고 한다. 금년의 경우에는 3월 2일 발병을 확인한후 다음날 절반의 닭에 감염되고 3일만에 산란율이 90%에서 50%로 떨어져 바로 처분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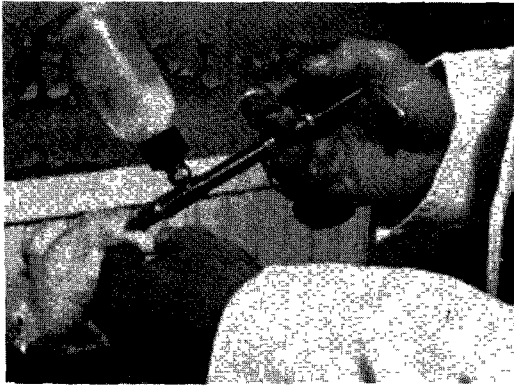
이번 강화, 홍성 외에도 포천, 일산등 여러 곳에 비슷한 증상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지역에서도 여러농장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장들이 가축위생시험소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기 보다는 자체 치



△ 양계질병의 피해는 때로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 ■ ILT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 예방접종은 최선의 방역이나 현재는 백신도입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료를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는

첫째, 농장에 질병이 발생한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노계처분을 제값을 받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몇명 안되는 닭상인들에 알려지면 거의 배리는 값으로 판매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양계장들이 사료값 등 많은 빚을 지고있어 소문이 나쁘게 나면 빚정리후에 길거리로 나서야 되는 불안 등 때문에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아무리 사전에 질병 예찰사업을 철저히 하려고해도 실제 농장에서 숨기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다행히 이번 몇개 농장에서 신속히 가검물을 연구소에 보냈고, 연구소에서도 즉시 현지 확인과 병성감정으로 이 책이 발행될 때에는 질병 발생 주의보 또는 예보가 나갈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 질병의 치료 방법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사전에 예

방접종을 하는 길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역이 되는데 현재 개발된 백신 자체가 병원성이 있어 성급하게 백신도입을 무계획하게 할 수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상재지에서는 질병의 근절이 거의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일단 발병 후에는 회복되어도 보균제로 계속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병지역 닭들을 수거해서 소각 매몰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가장 경제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 나라 전체 닭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단지 질병발생 예보나 경보에 그치고 그다



△ 질병 감염계는 수거해 소각 매몰해야 한다 (사진은 수거된 질병감염계)

음의 방역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양계 산업에 또하나의 비극이 될 뿐이다.